

신성한 것이라고 언어와 순수예술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그것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

4

헤세는 '시인의 사명'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한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먼저 "시인 자신은 다만 한 豫感者, 한 고뇌자에 지나지 않습니다."⁷⁴⁾라고 전제하고 독자들이 시인을 신뢰하여 그에게 '지도'나 '예지'를 강요하더라도 그것을 품위있게,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인은 결코 인생의 智者도, 司祭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학 속에 표명된 일관된 신념은 인간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유일무이하게, 독단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영혼 속에서 그런 의미를 스스로 예감하고 파악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고 구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⁷⁵⁾ 이 편지에 나타난 그의 기본적인 태도와 신념에서 우리는 헤세가 독자들 개개인의 인격과 그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경과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고 또 인생의 시련이나 시대의 고난을 극복함에 있어서 시인 자신의 조언이나 교시로써가 아니라 직접 독자들과 함께 고뇌하며 모색한다는 그의 겸허하면서도 진지한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창작을 통한 독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인생의 극복자로서, 강자로서, 碎波속의 바위로서"⁷⁶⁾ 말하지 않고 "고뇌속에서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서, 인간성의 수호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으로서만"⁷⁷⁾ 말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따라서 그의 문학은 언제나 한 고뇌자(작가)와 다른 고뇌자(독자)간의 메신저 역할에 충실했다. 종전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각종 정치, 사회, 문화단체들이 다투어 헤세를 그들의 활동이나 운동에 동참시키려고 끊임없이 헤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그런 권유나 요구가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뷔르템베르크州가 그에게 정치적 재건작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나의 봉사와 천직은 인간성을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이 양자에 동시에 헌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치는 당파를 요구하지만 인간성은 당파를 금합니다."⁷⁸⁾라고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변명의 시도」라는 한 공개 서

74) Ebd. S. 532-533.

75) Vgl. ebd. S. 531.

76) Gotthilf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S. 161.

77) Ebd.

78)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S. 79. "Mein Dienst und Beruf ist der der Menschlichkeit. Beide sind nötig, aber beiden zugleich dienen ist kaum möglich. Politik fordert Partei, Menschlichkeit verbietet Partei."

한에서 “정신적 실체의 옹호자이며 말과 진리에의 봉사자들”⁷⁹⁾인 시인은 사회운동가나 정치가들과는 다른 “경기규칙 *Spielregel*”⁸⁰⁾을 가지고 있고 그 규칙은 정치가들의 ‘규칙’보다도 더욱 “영원하고 신성한 규칙”⁸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고귀한 ‘규칙’을 가진 시인이 다른 경기규칙에 따르거나 또는 그것과 타협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一例로 그가 존경하는 앙드레 지드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드는 체념하고 깊은 실망에 빠져서 그의 목소리와 그의 이름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바쳤다. 그리고 그는 시인으로서 소멸되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물러나서 침묵하고 있다.”⁸²⁾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그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헤세도 전쟁 중에는 “그의 모든 조용한 명상적 철학까지 내던지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까지”⁸³⁾ 외적 생활에 몰두하며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어떤 이데올로기나 당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시인으로서 독자들에게 “인간성의 신성한 근본명령”⁸⁴⁾을 전하기 위해서 였다. 그는 다른 한편에서는 시인은 ‘관찰자 *der Betrachtende*’ 이어야 하지 결코 ‘행동자 *der Handelnde*’ 이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신조를 표명하고 있다.⁸⁵⁾ 따라서 시인으로서의 그의 행동은 오직 창작이어야만 하고 그의 관찰은 이 창작을 통해서만 행동이 될 수 있으며 창작을 통하지 않은 그의 행동은 시인으로서의 자기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철저한 非行動 원칙에 대해서 일부 진보주의자들이나 행동파 작가들은 헤세와 같은 영향력있는 작가가 왜 철저하게 자신을 개인주의 속에 가두어 넣고 사회의 공동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나 활동을 외면하는가 하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가의 현실 참여는 어디까지나 그 작가의 세계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작가가마다 세계관이 다르듯이 그의 행동양식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집단보다 개인에 의한 세계 개선을 주장하는 헤세는 개인의 옹호를 그의 창작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순수한 이기주의 *ungetr über Egoismus*”⁸⁶⁾의 유지를 자기 존재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그에게는 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만이, 다시 말하면 “개인적, 정신적 생명의 不壞性”⁸⁷⁾을 보증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그에게는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인 행동이나 공적인 성명이나 항의

79) *Versuch einer Rechtfertigung*. GS. Bd.7. S. 466.

80) *Ebd.*

81) *Ebd.*

82) *Briefe*. GS. Bd.7. S. 601.

83) *Ebd.* S. 503.

84) *Versuch einer Rechtfertigung*. GS. Bd.7. S. 467.

85) *Vgl. Briefe*. GS. Bd. 7. S. 649.

86) *Ebd.* S. 783.

87)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S. 256-257.

같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그의 행동 원칙이 그의 현실참여의 폭을 제한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나 시대의 現狀에 대한 그의 시각마저 좁힌 것은 아니었다. 헤세는 오직 자신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행동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체험과 모험을 향해 가슴을 열고 있었고 시대나 인간의 외면적 상황보다 그 내면과 본질을 깊이 투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야만적인 시대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에게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에서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 “놀라운 가능성”⁸⁸⁾을 발견하여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그 ‘가능성’의 희망과 신념을 전달할 수 있었다. 헤세는 자신을 곧잘 ‘獨行者 Einzelgänger’, ‘隱者 Einsiedler’라고 불렀다. 그는 독일의 문화계와 공식적인 접촉을 거의 가지지 않았고 잡지 편집이나 문학 강연등의 활동도 극도로 자제하며 몬타놀라라는 작은 마을 속에 숨어 외로운 창작의 길만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유리된 고고하고 유유자적한 목가적인 삶만은 아니었다. 전쟁 중에는 독일 포로들을 돕는 일에 적극 발벗고 나섰고 고국을 등진 망명작가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선뜻 피난처로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그의 조국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쟁에 항의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은둔지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당대의 걸출한 지성인들과의 만남을 빈번히 가졌고 독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의 독자들과도 그의 작품을 통해서 또는 서신교환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천 가닥의 실”⁹⁹⁾으로써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 그때문에 세계가 戰火에 휩싸였을 때 그의 몸은 비록 스위스라는 안전지대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행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보다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철저하게”⁹⁰⁾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앓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이나 당사국의 국민들이 전쟁의 책임을 회피할 때 그는 선뜻 나서서 그 책임의 일단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선언하면서 모두가 유죄의식을 가지고 관용과 화해의 길을 걷자고 호소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권력에 매수되고 양심이 마비된 시대에 진실로 “최악에 아픔을 느끼는 양심”⁹¹⁾을 가진 시인이었고 “악마와 같은 전쟁 속에서도 진실로 괴테적인 태도를 견지한 시인”⁹²⁾이었다. 그러나 토마스 만과 로망 롤랑의 이런 찬사에 대해 헤세는 오히려 자신은 시인으로서 ‘전달자’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한 젊은 동료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88) Briefe. GS. Bd. 7. S. 610.

89)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S. 151.

90) Ebd. S. 148.

91) Thomas Mann: Hermann Hesse. Zum siebzigsten Geburtstag. In: T. Mann, Altes und Neues. S. Fischer Verlag. S. 214.

92) Hugo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S. 133.

자신의 소임을 ‘빛을 전하는 창’에 비유하고 있다.

“시인은 … 빛도 아니고 햇불을 든 사람도 아닙니다. 시인은 기껏해야 독자에게 빛을 닿게 하는 창인 것입니다. 시인의 가치는 영웅 정신이나 … 이상적인 강령과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시인은 창으로서 빛을 방해하지 않고 빛을 향해 마음을 닫지 않을 때에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⁹³⁾

시인은 빛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빛을 향해 가슴을 열고 있어야 하지만, 그 자신이 빛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시인은 “현실을 향해 열려진 마음”⁹⁴⁾과 “빛을 투과시키는 능력”⁹⁵⁾을 가질 때에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서 그의 뜨거운 眞理愛와 투철한 작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Texte

Hermann Hesse: Gesammelte Werke Band 6(GW. Bd. 6)/Band 7(Gw. Bd. 7). Frankfurt am Main 1970.

Hermann Hesse: Gesammelte Schriften Band 7(GS. Bd. 7). Frankfurt am Main 1957.

Hermann Hesse: Das Glasperlenspiel. Berlin und Frankfurt am Main 1957.

Hermann Hesse: Die Gedichte. Berlin 1953.

Hermann Hesse-Thomas Mann Briefwechsel. Frankfurt am Main 1984.

Hermann Hesse: Briefe. Erweiterte Ausgabe. Frankfurt am Main 1964.

Hermann Hesse/Romain Rolland: Briefe. Zürich 1954.

2. Sekundärliteratur

Hugo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Berlin u. Frankfurt am Main 1954.

Gotthilf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Nürnberg 1954.

93) An einen jungen Kollegen in Japan. GS.Bd.7. S. 461. “Der Dichter,... ist weder ein Licht noch ein Fackelträger, er ist bestenfalls ein Fenster, durch welches das zum Leser gelangen kann, und sein Verdienst hat mit Heldentum, ... und idealen Programmennicht das mindeste zu tun; sein Verdienst kann lediglich darin bestehen, daß er Fenster ist, daß er dem Licht nicht im Wege steht, sich ihm nicht verschließt.”

94) Ebd.

95) Ebd.

- Volker Michels (Hrsg.): Über Hermann Hesse. Erster Band/Zweiter Band. Frankfurt am Main 1976-1977.
- Siegfried Unseld: Hermann Hesse. Werk und Wirkungsgeschichte. Frankfurt am Main 1987.
- Siegfried Unseld: Begegnungen mit Hermann Hesse. Frankfurt am Main 1975.
- Siegfried Unseld: Hermann Hesse. Eine Werkgeschichte. Frankfurt am Main 1973.
- Volker Michels (Hrsg.): Hermann Hesse. Sein Leben in Bildern und Texten. Frankfurt am Main 1987.
-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einbek bei Hamburg 1981.
-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1877-1977 Stationen seines Lebens, des Werkes und seiner Wirkung. Gedenkausstellung zum 100. Geburtstag in Schiller-Nationalmuseum. Stuttgart 1977.
- Adrian Hsia (Hrsg.): Hermann Hesse heute. Bonn 1980.
- Fritz Böttger: Hermann Hesse. Leben. Werk. Zeit. Berlin 1974.
- G.W. Field: Hermann Hesse. Kommentar zu seinen Werken. Stuttgart 1977.
- Volker Michels (Hrs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Das Glasperlenspiel》. Bd.1/Bd.2. Frankfurt am Main 1973.
- Hermann Hesse. Der Steppenwolf. Interpretation von Helga Esselborn Krumbiegel. München 1988.
- Martin Pfeifer: Hermann Hesse. Der Steppenwolf/Siddhartha. Zum Verständnis seiner Prosa. Hollfeld/Ofr. 1984.
- Manfred Durzak (Hrsg.): Die deutsche Literatur der Gegenwart. Aspekte und Tendenzen. Stuttgart 1971.
- H.L. Arnold: Text + Kritik 10/11. München, Mai 1977.
- Colin Wilson: Der Outsider. Eine Diagnose des Menschen unserer Zeit. Stuttgart 1957.
- Stefan Grunwald (Hrsg.): Theorie und Kritik. Zur vergleichenden und neueren deutschen Literatur. Festschrift für Gerhard Loose zum 65. Geburtstag. Bern und München 1974.
- E.R. Curtius: Kritische Essays zur europäischen Literatur. Bern 1950.

《Zusammenfassung》

Die Sendung des Dichters in der Krisenzeit bei Hermann Hesse

Kim Suck-Do

Hermann Hesse lebte seit jeher abseits der Zentrale der Politik. Vor dem Weltkriegsbeginn nahm er noch keine klare, durchdachte Einstellung zu den Fragen von Militarismus und Antimilitarismus oder Krieg und Frieden. Beim Ausbruch des Ersten Weltkriegs lebte er bereits zwei Jahre in der neutralen Schweiz. Deshalb unterschied sich seine Lage von der vieler anderer deutscher Schriftsteller. Hesse unterstützte weder den Kaiser Wilhelm II., noch widersetzte er sich dem Krieg. Aber er entsetzte sich in Bälde über die chauvinistischen Kriegsbegeisterungen und Haßtiraden vieler deutschen Schriftsteller. Täglich fand er in den deutsche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eine Hochflut von Kriegsgedichten, patriotischen Gelöbnissen und apologetischen Essays von Intellektuellen. Er ärgerte sich vor allem darüber, daß sich die meisten Dichter der kriegsführenden Länder in Tiraden gegenseitigen Hasses ergingen. Seither war seine Stellung zu diesen politischen Erschütterungen von erstaunlich sicherer Entschiedenheit. Mit dem Aufsatz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tellte er sich gegen den Wahn nationalistischer Bessenheit und gegen die Barbarei. Darin beschwor er alle Intellektuellen, den Krieg nicht ins "Reich des Geistes" hinüberzutragen und den Haß der Völker gegeneinander nicht zu vertiefen. Zugleich verherrlichte er auch darin den übernationalen Gedanken von Goethe und schrieb dazu: "Goethe war ein Bürger und Patriot in der internationalen Welt des Gedankens, der inneren Freiheit, des intellektuellen Gewissens." Und er appellierte inständig an Humanität und Vernunft. Aber sein Aufruf "O Freunde, nicht diese Töne!" isolierte ihn fast völlig von der Umwelt. In der deutschen Presse wurde er als "Volksverräter" und "Gesinnungslump" beschimpft. Zwischen Wirklichkeit und Ideal sah er "einen hoffnungslosen Abgrund liegen." Aber sein leidenschaftlicher Aufruf an die Menschen des guten Willens fand sein Echo in Romain Rolland. Er erhielt ein Briefchen von Rolland als einzige sympathische Reaktion auf seinen Aufsatz und fand in ihm einen Weggenossen und Gleichgesinnten. Hesse entschloß sich, in der Krisenzeit die Menschheit und die Geisteswürde gegen die babarische Gewalt zu verteidigen. Für ihn bedeutete der

Krieg nicht nur die Zerstörung seiner Freiheit und Unabhängigkeit, sondern auch die der Menschlichkeit und des Geistes des Menschen. So begann sein feuriger, zäher Protest. Im "kurzgefaßten Lebenslauf" bemerkte er dazu: "Auch ich war [...] genötigt, meine stille, beschauliche Philosophie wegzuwerfen, und mich bis zum Verbluten an den Tag hinzugeben, [...] für nahezu zehn Jahre war der Protest gegen den Krieg, [...] der Protest gegen die <Geistigen>, namentlich die den Krieg predigten, für mich Pflicht und bittere Notwendigkeit." Er lehnte jede Änderung der Welt durch Gewalt ab, auch nicht die sozialistische, auch nicht die scheinbar erwünschte und gerechte. Er glaubte nun einmal nicht an die bessernde und entsöhnende Kraft des Totschlagens. In den vier Kriegsjahren veröffentlichte er unzählige Antikriegs-Aufsätze, Essays und Gedichte, in denen er an das weltbürgerische Bewußtsein und an die Menschenliebe appellierte. Auch als in Deutschland die Nationalsozialisten die Herrschaft übernahmen, scheute er nicht einen offenen Kampf mit ihnen. Hesse hielt es für seine Pflicht als Dichter, das individuelle Leben in seiner Bedrohung durch den Staat, durch die Masse, durch den Krieg abzuwehren. Deshalb hörte sein Protest gegen den Größenwahn des Nationalismus und gegen den Antisemitismus nicht auf, obgleich er wieder von den fanastischen Nationalisten attackiert wurde. Er glaubte fest, daß es keine Revolution, sondern "die Magie der Liebe" sei, das allmählich erlöschende Menschentum zu retten. In einer Zeit des allgemeinen Verlustes individuellen Menschentums und persönlicher Würde, der Entgeistigung, schien es ihm erforderlich, deutlich an die sittliche Autonomie des einzelnen Menschen zu appellieren und den Weg zum dem Geist andauernden Dienen zu weisen. Hier findet man Hesses Glauben an die unzerstörbare Menschlichkeit, und an die Menschenliebe und seinen Dienst-Willen an dem Geist. Das Gedicht "Besinnung", die wesentlichen Artikel seines Glaubens in poetischer Form aufzustellen, hebt an: "Göttlich ist und ewig der Geist," und es schließt mit einer Mahnung zu caritas und Duldsamkeit: "Und nicht Richten und Haß, / sondern geduldige Liebe, / Liebendes Dulden führt uns dem höchsten Ziele näher." Aber die Reden Hitlers und seiner Minister, ihre Zeitungen und Broschüren wirkten auf Hesse wie Giftgas. In einem Brief beschrieb er: "Die Luft war wieder giftig, [...] Inmitten dieser Drohungen und Gefahren für die physische und geistige Existenz eines Dichters deutscher Sprache griff ich [...] zur Produktion." Das war "Das Glasperlenspiel", das später unmittelbar zur Verleihung des Nobelpreis für Literatur führte. Im gleichen Jahre empfing er auch den Goethe-Preis der Stadt Frankfurt. In seiner Dankadresse für den Goethe-Preis erklärte er, daß das 20. Jahrhundert an den

beiden Weltkrankheiten leidet: dem Größenwahn des Nationalismus und dem Größenwahn der Technik. Der Widerstand gegen diese Weltkrankheiten, meinte er, sei heute die wichtigste Aufgabe. Diesem Widerstand habe auch sein Leben gedient. In den zwanziger Jahren nahm bereits Hesse eine kritische Haltung zu der neuen großen Industrialisierungswelle ein. Er zweifelte an dem Wert des technischen Fortschrittes für das Wohl der Menschen, denn er fand den enthumanisierenden Tendenz in der technischen Entwicklung. In der "Nürnberger Reise" und im "Steppenwolf" kehrte er seinen Widerwillen gegen die Maschinenzivilisation schroff hervor. Im ersteren, einem ironischen Reisebericht, kritisierte er die mechanisierte Großstadt, im letzteren schilderte er humoristisch, aber unheimlich den Kampf zwischen Menschen und Maschinen in "Hochjagd auf Automobile". Daneben mahnte er auch an die Verschmutzung und Zerstörung der Umwelt. Seine damalige Reaktion auf diese Probleme, die sich in den zwanziger Jahren erst leise ankündigten, heute jedoch—siebzig Jahre später—die gesamte zivilisierte Welt beschäftigen, klingt uns eindrucksvoll.

Nicht nur die Verteidigung des Individuums, sondern auch die freie Verwirklichung der jedermann eigenen Individualität war für Hesse die Aufgabe der Dichtung und die Grundprinzipien des eigenen Daseins. Er war konsequenter Individualist und Einzelgänger, der mit dem hohen Eigensinn nur seinen "Weg nach innen" ging. Die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Tätigkeiten lagen ihm fern, aber er fühlte sich verpflichtet, auf seine sehr persönliche Weise, klar und deutlich Stellung zu den Fragen der Zeit zu nehmen und der Krise der Zeit mit Entschiedenheit, mutig zu begegnen. Von kollektiven Aktionen und öffentlichen Protesten hielt er wenig, und er gehörte keiner Partei und keiner Gemeinschaft an, schloß sich keinem der literarischen Zirkel an. Aber er nahm am Geschehen der Welt mit einem scharfen Einsicht und mit einem wachen Gewissen teil, litt unter allen Krisen gründlicher und intensiver als andere deutsche Dichter vom gleichen Zeitalter.

